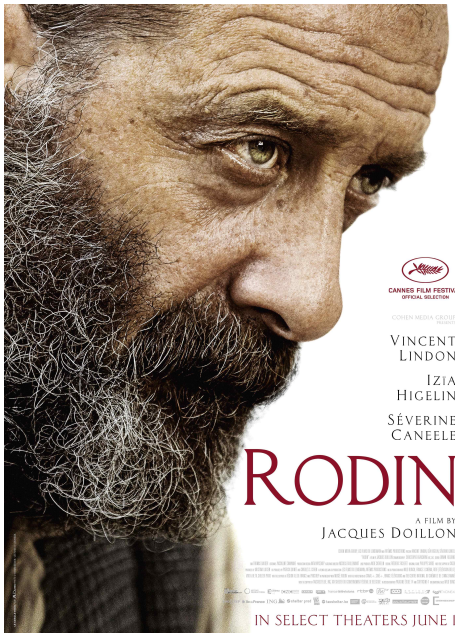


23 Which one is Original ? - Musee Rodin Paris

로댕 미술관의 여러 곳에 있는 다양한 생각하는 사람들.. 도대체 누가 진짜일까 ?

23

R 실랑이를 뒤로하고 로댕 미술관으로 향했다. 아담한 크기와 넓은 정원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. 입구에서 맞이한 것은 예상대로 인체보다 50% 거대한 정원의 좌대에 앉은 있는 ‘생각 하는 사람’ 이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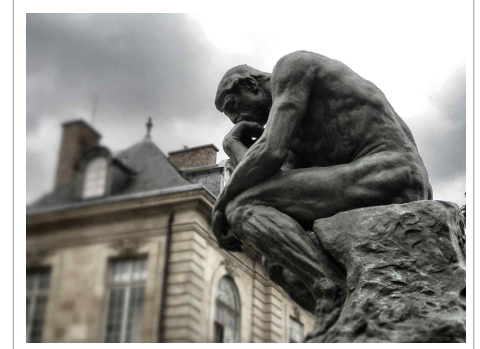
O 다양한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다. 그래 이거지 내가 하고 싶었던 여행이었다.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. 촬영을 마치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다.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으로 미술관은 가득 채워져 있었다. 2 층으로 올라가던 나는 멈췄다. 인체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딱하니 앉아 있었다. 아 ! 어쩐지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실외에 있다는 게 이상했어. 나는 입구에서 가졌던 판단을 바로 내려놓았다.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작품을 찍기 시작했다. 나의 눈에는 실내의 작품이 좀 더 윤이 나고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졌다.

다양한 작품들을 보았다. 로댕과 까미유 작품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보는 것은 재미있었다. 사실 내 눈에는 클로델의 작품을 구체화 한 것이 로댕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비전공자의 순간의 느낌이 전부인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관람을 정리하고 정원으로 나왔다.



넓은 야외 정원에도 많은 조각 작품들이 있었다. 내 눈에도 익숙한 ‘칼레의 시민들’ ‘발자크’ 등등 문제는 ‘지옥의 문’ 이었다. 커다란 작품의 제일 위쪽 중심에 30 센티 정도의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. 아니 이게 뭐지 ?

압도적인 ‘칼레의 시민들’ 의 매력에 빠져들려는 순간 바로 옆 지옥의 문에 눈길이 빠졌었다. 사실은 혼란스러웠다. 왜 이렇게 여러 개지 ?



P 처음 느낌과 달리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미술관을 나오고 있었다. 그런데 지금 아니면 언제 이 의문을 풀 수 있을까 ? 라는 생각으로 입구의 관리실로 갔다. 제복 입은 사람이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“ 미술관에는 여러 개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냐 ? ” 그는 머뭇거렸다. 내가 “ 실내의 것이 진짜인가 ? ” 라고 말했더니 그는 끄덕끄덕했다. 그런가 ? 돌아서 나오며 내가 적절한 사람에게 물었나 ? 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되돌아갔다.

이번에는 바로 큐레이터를 찾았다. 안쪽에서 누가 나와서 자신이 큐레이터라고 밝혔다. 오리지널에 관한 나의 질문에 그는 “ 조각은 회화와 달리 하나의 작품을 여러 크기로 만들어 보고 각 작품에 넘버를 부여해 관리한다. 즉 넘버가 부여된 모든 작품이 오리지널이다. 작품을 직접 본 것만큼이나 행복한 답변이었다.

